

#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본격화 노래로 물드는 옥정호 빛꽃축제

## 남원시,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개관식 갖고 본격 운영 돌입

남원시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은 25일, 지역 바이오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영호남 지역 유일의 '시험검사·피부임상 통합 플랫폼'인 바이오테스팅센터를 개관하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지도의 중심축을 남원으로 대전환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시험·임상 서비스 합인 프로모션'은 수도권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기업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남원의 산업적 매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엔 문을 연 바이오테스팅센터는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통합형 바이오 인프라로,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바이오·화장품 검증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화장품의 안전성·효능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기능과 피부임상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시설로 완성한 만큼, 남원시는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제품 개발부터 시험·검사, 최종 임상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산업 전주



남원시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25일, 지역 바이오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기 지원체계'를 완성,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센터는 앞으로 단순 검사기관 넘어 바이오 R&D 엔진'으로 향후 기업 수요에 맞춰 △정밀 시험·검사 및 분석 △고도화된 피부임상시험 △첨단 장비 활용 지원 △기업 입주 공간 및 공동연구·기술 자문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단계별 확장 로드맵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시험·검사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화장품 분야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식품 △2028년 축산물·농산물·위생용품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며, 센터 내 바이오산업 홍보관을 조성해 산업적 시너지와 대외 홍보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영철 원장은 "이번 바이오테스팅센터 개관은 화장품 산업의 핵심 기반이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며, "체계적인 R&D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이오 생태계의 심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 순창군, 환영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총 40명으로 라오스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이 가운데 21명이 1차로 입국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지역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나머지 19명은 4월 중순 추가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핵심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심화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자살예방위원회 갖고 대응체계 강화

남원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5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자살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2025년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과 2026년 자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자살사망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5년 5월부터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위원장을 기존 보건소장에게서 부시장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자살 고위험 시기(3~5월) 집중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4월 12일 '봉어섬 빛꽃가요제' 개최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의 수려한 봄 경관을 배경으로 한 '제2회 봉어섬 빛꽃가요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가요제는 봄꽃이 만개한 옥정호 봉어섬에서 열리는 '2026 옥정호 빛꽃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표프로그래프로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진행된 예선에는 총 123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으며, 이 가운데 1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은 빛꽃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옥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하모니카와 색소폰 연주 등 지역 예술인들의 사전 공연이 펼쳐지며, 가수 강민주를 비롯해 이진, 진현, 임재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실력파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심사에는 가수 김하진(태경)과 작곡가 김상철 등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며,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규모의 시상식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가요제는 '2026 옥정호



빛꽃축제'와 연계되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다. 축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팬지, 아비모네, 수선화 등 3만여본의 봄꽃이 식재된 '꽃의 섬'이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4월 11일 오후 3시 개막식에는 웅장한 브라스밴드 공연과 CBS 주최 축하 공개방송이 열리며, '미스터트롯 3' 최종 우승자 김용빈을 비롯해 TOP6 출신 남승민, 미스트롯 4' 3위 홍성운, 채운 등 초호화 스타들이 출연해 옥정호의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와함께 7080 밴드, 퓨전국악 및 브라스밴드,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 가져

임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청렴시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렴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반부패·청렴 인프라 강화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



산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25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에스에스알과 지역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은 지난 24일 (유)에스에스알과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민 복지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에스에스알이 운영하는

선웨이어드벤처 워터파크는 순창군민에게 비수기 20%, 성수기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역 청년을 위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와 지역 축제 지원, 지역소멸 대응 공동연구, 중앙정부 공모사업 공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축산농가

###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임실군은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6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연 1.8% 저금리로 100% 용자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최대 6억~9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으로, 한우, 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염소), 꿀벌 등 전 축종이 포함된다.

군은 사유두수와 기존 대출잔액, 지원 한도 등을 종합 검토해 4월 24일까지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신청된 농가는 6월 17일까지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 폭행 사고 예방 강화

남원소방서는 최근 증가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응에 나선 구급팀 최승범 팀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진건강·자살예방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주취차 및 정신질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위험 사례를 공유, 이를 통해 경찰,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산재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대상 폭행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시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 남원소방서는 폭행 예방 교육과 대응 매뉴얼 점검을 병행하며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